



제목	A History of Slavery and Emancipation in Iran, 1800-1929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Texas Press
발행일	2017. 5. 16.
저자	Behnaz A. Mirzai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44
ISBN 또는 ISSN	978-1477311868

내용 요약

이 책은 19세기 초의 노예화에서 20세기 중반의 노예해방까지 이란의 노예에 관한 역사서이다. 중동의 노예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연구주제이지만 이란에 관해서는 이 책에서 처음 연구되었다. 연구 범위는 서쪽으로 아프리카, 동쪽으로 인도, 북쪽으로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남쪽으로 아랍의 국가들을 포함하였다. 이란과 이들 지역 간의 노예무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민족적 경계선을 넘어 문화와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그래서 이란의 노예사는 근대민족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저자에 따르면, 군사적 급습, 변경의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 경제적 위기 등이 노예화의 유형과 노예의 민족성을 변화시켰다. 또 국가의 권위와 노예무역이 연관되어 있어서 국가가 지방분권화되면 될수록 노예무역이 증가하였고, 중앙집권화되면 될수록 자유와 평화가 증가하여 노예무역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은 시대적 흐름을 적은 것이다. 1장은 1600~1800년 이란 변경 지역의 상업과 노예화에 대해, 2장은 1800~1900년 노예화와 새로운 이란 변경 구축에 대해, 3장은 1800~1900년 아프리카에서 이란까지 노예화된 사람들의 무역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은 노예화의 양상, 5장은 19세기 이란의 노예, 6장은 노예무역 억압을 위한 입법, 7장은 이란 내의 반노예 논쟁, 8장은 노예 해방 등을 설명하였다. 이란인, 비이란인,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망라하여 노예화와 노예의 인종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 처음 시도하는 독특한 주제와 시각이라는 점이 이 책의 의의가 있다.